

# 광주은행, 전남도에 고향사랑기부금 3000만원 전달

### 정일선 은행장, 국립의대 부속병원 지정기부사업 첫 참여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전남도에 전달됐다. 지역 대표 금융기관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면서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상생에 대한 관심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9일 광주은행이 정일선 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실시한 모은 성금 30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특히 정일선 은행장은 ‘전남도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 지원사업’ 지정기부사

업에 500만원을 기부하며 해당 사업의 첫 고객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이번 기부는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 격차 해소를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정 은행장은 개인 고객 기부자로서 전남도 고향사랑기부 명예의 전달에도 헌약했다.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과 상생하는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기부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려는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일선 은행장은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

게 돼 뜻깊다”며 “전남도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한 광주은행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전남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 지원 지정기부사업의 첫 고객 기부자로 참여한 정일선 은행장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금은 지역 의료 기반 확충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미 있게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은행은 전남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선에 4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9일 도청 접견실에서 광주은행 정일선 은행장으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 3천만 원을 기탁받고 있다.

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

된다. 또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

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도시공사 ‘청렴실천·갑질근절 챌린지’

### 김승남 사장 챌린지 첫 출격 수평적 윤리경영 실천 앞장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3월을 ‘갑질 근절 및 상호존중의 달’로 지정,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에 돌입했다.

9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최고 경영진이 먼저 부패 방지 다짐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의지를 표명해 전사적인 윤리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릴레이 첫 주자로 나선 김승남 사장은 이날 사내 반부패청렴정책 게시판을 통해 친필로 작성한 청렴 명언과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유영욱 상임감사를 지목하며 캠페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챌린지는 최고경영자(CEO)와 상임감사를 포함해 본부장, 처장, 노동이사 등 총 11명의 고위 관리직급 인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한 다. 지목받은 일반 직원들 역시 자율적으



로 합류해 수평적 소통의 폭을 넓힌다.

릴레이 과정에서 작성된 인증 사진과 글은 내부 임직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망에 상시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고 경영진의 솔선수범이 전사적인 청렴 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기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고가영 서울대 연구교수

###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장 선임

고가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59·사진)가 고려인마을을 산하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장에 선임됐다.

9일 (사)고려인마을에 따르면 고가영 연구교수는 고려인 공동체 연구와 정책 제안, 학술 교류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그동안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광주 고려인마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온 연구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논문 ‘실림자가 있는 광주 고려인 마을 공동체의 발전 단계별 특성과 한계’를 통해 광주 고려인마을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분석하고 고려인 공동체가 지닌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알렸다. 이를 통해 광주 고려인마을이 지닌 독특한 공동체 모델을 학문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 교수는 2025년 제13회 ‘고려인의 날’ 기념식에서 고려인마을 표창장을 수상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연구소는 고려인 역사 연구의 체계화와 국제 학술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광주 고려인마을을 세계적인 디아스포라 연구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신조아 (사)고려인마을 대표를 “고 교수는 고려인마을의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학문적으로 정리해 온 연구자”며 “연구소가 학문과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농협은 ‘2025년 지도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 2년 연속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광양농협

## 광양농협, 지도사업 평가 전국 1위 쾌거

### 농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등 호평

광양농협은 ‘2025년 지도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 2년 연속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상을 수상했다.

지도사업 평가는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 농촌복지시설 운영, 취약농가 지원, 여성·청년농업인 육성 등 2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광양농협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서 현장 중심의 영농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농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여성·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지도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조합원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이 성과로 이어지고 영농 애로사항 수시 청취, 농번기에 맞춘 교육 일정·지원

이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허순구 농협장은 “2년 연속 전국 1위라 로부터 대상을 수상했다.

조합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도사업은 농업인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농협은 지도사업 대상 외에도 농·축협 종합평가 우수상, NH카드 연도대상 3년 연속 수상, 손해보험 종합 부문 최우수상, 생명보험 우수학습조직상, 범농협 사회공헌상 등 여러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경영성과를 이어 나가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 “읽고·쓰고·운동하기” 단순하지만 삶의 방향의 힘

### 차인표 배우 겸 작가 초청 ‘보성자치포럼’ 성료

### ‘하루를 바꾸는 세 가지 습관’ 주제 강연 펼쳐

보성군은 최근 별교읍 체육선유약당에서 배우이자 소설가인 차인표 작가를 초청해 ‘제380회 보성자치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4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차인표 작가가 ‘하루를 바꾸는 세 가지 습관’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차 작가는 오늘의 자신을 지탱해 온 세 가지 원동력으로 읽기, 쓰기, 운동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습관이 단순한 일과를 넘어 내면의 단단함을 키우고 삶의 방향을 정립하는 힘이 되었던 과정을 진솔한 에피소드와 함께 풀어냈다.

차 작가는 습관의 반복이 삶의 궤적을

바꾸는 거대한 에너지가 된다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포럼에 앞서 피아니스트이자 강연 연출자인 문아람이 강연 메시지를 아우러진 섬세한 피아노 연주를 선보이며 강연자와 청중 사이의 정서적 교감을 높였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군민들께서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일상 속 작은 습관이 주는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함께하는 배움과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th66@gwangnam.co.kr



보성군은 최근 별교읍 체육선유약당에서 배우이자 소설가인 차인표 작가를 초청해 ‘제380회 보성자치포럼’을 진행했다. 사진은 포럼에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성군

## 서배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수석부회장

### 행안부장관 표창...기업경영·사회공헌 기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수석부회장인 서배실(취대신문건 대표이사)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9일 개최된 제2차 운영위원회의에서 강성진 회장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대신해 서배실 수석부회장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고 밝

혔다. 서 부회장은 평소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 경영을 실천하며 각종 사회공헌 활동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도회 수석부회장으로서 협회 발전과 회원사 권익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국립광주과학관, ‘한글햇살버스’ 최종 선정

###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협력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장구)이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송형길)과 협력해 운영하는 광역 단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한글햇살버스’에 최종 선정됐다.

‘한글햇살버스’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공지능(AI)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부가 공모한 사업이다.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생활 중심의 기초 문해 및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선정된 국립광주과학관은 인공지능(AI) 과학·디지털 교육 전문기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기초 과학 원리를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단계별 인공지능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과학관인 보유한 전시·체험 콘텐츠와 연계해 어린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프로그램은 체험과 실습 중심으로 운영



되며, 공통과정과 선택형 기초·심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는 단계별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광주과학관 과학교육실 문기현 연구원은 “과학기술 기반의 디지털 교육을 통해 어르신과 정보 취약계층이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관의 공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